

시끌벅적 e-스타



'어글리 몬스터' 정체를 밝혀라

동물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등 위에 10cm 길이의 날개 한 쌍을 달고 있는 고양이와 바다 괴물로 인터넷이 들썩거리고 있다.
중국의 한 인터넷신문에 보도된 센양에 살고 있는 한 살 날 수컷 고양이는 등에 10cm의 날개 한 쌍이 나 있다.
원래는 작은 돌기어 불과했는데, 갑자기 10cm로 자라면서 날개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 날개 때문에 '천사 고양이'라는 애칭도 붙었다.
고양이의 상태를 점검한 수의사도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돌연변이로 생각했으나, 고양이의 상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봉준호 감독의 괴물과 비슷한 '바다 괴물'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물'도 화제다. 최근 아프리카 기니 해안에 떠밀려온 네 개의 밭과 엄청나게 큰 입, 온몸에 긴 털이 나 있는 괴생체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인터넷에서 '바다 괴물'로 불리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프라우다 인터넷판은 이 바다 괴물이 '어글리 몬스터'로 불리며 매우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어 과학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두 동물은 순식간에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네트워크들은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말에는 남극해에서 몸통 길이가 10m 정도이고 무게 450여kg의 대왕오징어가 잡히기도 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유머

■ 언제 하려고?

잡자다가 목이 말라 일어났다.
그런데 부시락 소리에 깨 아내가 하는 말.
“지금 하려고?”
힐끗 쳐다보곤 아무 말없이 불을 켜더니 요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아내가 하는 말.
“불 켜고 하려고?”
머리맡에 둔 안경을 찾아 썼더니 가웃 거리며 아내가 하는 말.
“안경 쓰고 하려고?”
인상쓰며 문을 열고 나갔더니 눈을 반짝 거리며 아내가 하는 말.
“쇼파에서 하려고?”
못들은척 그냥 나가서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내 마시고 있자니 침을 꽂아 삼키며 아내가 하는 말.
“물을 먹고 하려고?”
아내에게도 한컵 가득 따라주고 도로 들어와 잠을 청하려 하니 실망한 눈으로 쳐다보며 아내가 하는 말.
“새벽에 하려고?”

■ 내 골프채 출거야?

절없는 마누라가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만약에 말이죠… 만약 내가 죽으면, 여자를 새로 얹어서 재혼하실 거예요?”
남편 : “으음, 그럴지도 모르지…”
부인 : “재혼을 한다면 그 여자도 이집에서 살겠죠?”
남편 : “아마 그렇게 되겠지”
부인 : “그녀를 내 침대에서 재울 거예요?”
남편 : “물론 그래야겠지”
부인 : “내 웃도 입히구요?”
남편 :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부인 : “내 골프채도 쓰게 할 건가요?”
남편 : “그건 절대로 안될 거야”
부인 : “아니 왜?”
남편 : “그 여자는 원손잡이거든…”

■ 관계자와 출입금지

어떤 산부인과에 한 임신부가 실려왔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침대에 실려가는 그 임신부 옆엔 남편으로 보이는 듯한 남자가 있었다.
“여보! 여보! 조금만 참아!” “아악~”
병원복도를 달려 그 임신부를 실은 침대가 분만실로 들어가자 남편이 같이 들어가려 했다.
그때 간호사가 “관계자와 출입금지입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 남편, 정색을 하며 하는 말
“내가 저 여자의 관계자야여!”

■ 살아가는 동안

남편의 생일날이 되었다.
20대 : 남편을 위한 선물과 이벤트를 준비한다.
30대 : 고급 레스토랑에 외식을 나간다.
40대 : 하루 종일 미역국만 먹인다.
남편이 외박을 했다.
20대 : 너죽고 나살자고 달려든다.
30대 : 일 때문에 애근을 했겠지… 하며 이해하려 든다.
40대 : 외박했는지도 모른다.
설것이 하는데 남편이 영병이 텨 때렸다.
20대 : 아까 했잖아… 좀 자제하자 우리…
30대 : 자기도 참, 부끄럽잖아요.
40대 : 이 양반아 뭘 잘 못 먹었나. 설것이나 좀 해요.
시장에 가서 물건값을 깎았다.
20대 : 아저씨~ 좀 깎아주세요~
30대 : 아저씨 앞으로 자주 올테니까 깎아 주실 거죠?
40대 : 그냥 만원에 줘요.”하고 가져가 버린다.
임신을 했다.
20대 : 남편이 좋아서 들쳐업고 동네 한바퀴를 둔다.
30대 : 애 하나 더 생겨서 시들했던 부부관계가 회복된다.
40대 : 왜 실수했냐고 남편을 후라이팬으로 들들볶는다.

뉴스퀴즈

64. 미국프로야구에서 뛰었던 한국인 1호 타자인 이 선수가 고향 구단인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KIA는 최근 이 선수와 계약금 8억원, 연봉 3억 5천만원, 융선 4억원 등 최대 15억5천만원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빅초이’로 불리며 메이저리그 통산 363경기에 출장해 홈런 40개 등 타율 0.240(915타수 220안타) 120타점, 130득점을 기록한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최희섭 ② 박찬호 ③ 이병규 ④ 이승엽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분 매체부 퀴즈답장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7일(음 4월 1일 수)



36년생 순풍에 향해하나 역풍에 대비는 해야 하리라. 48년생 주변이 산연하고 어지럽다. 60년생 의외로 재물이 생기고 승진해운이 이성문제는 조심하다. 72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 실물은 조심하다. 84년생 정신이 흔미하니 심상의 안정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 10, 42



37년생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는 명예는 자자리라. 49년생 재물이 사랑에 있으나 내 것이 아니다. 61년생 차기 일을 조심하라. 벌어놓은 신용이 무너질까 걱정된다. 73년생 바빴던 일손은 놓고 가족을 돌아보라. 85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저마다의 강점은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06, 28



38년생 특별히 걱정해 유념해야 뒤틀리기 없으리라. 50년생 일 거수 일 부족을 조심하고 마음까지도 조심해야. 62년생 구설이 따르고 신체의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74년생 이성 때문에 혼자라 생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3, 41



39년생 뜻밖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인 참여로 기회를 잊지 마라. 51년생 혼자 사는 형상이나 재미가 없다. 63년생 남의 맡은 경청하되 결정은 혼자 하라. 75년생 자신 있게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23, 43



40년생 처가나 시가 편에 애사기 생길 수 있다. 52년생 차운 개는 같이나 일상에서 활동해야 한다. 64년생 지인의 협조가 있다. 76년생 풍파를 만나니 마음을 단단히 하고 신상의 안정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 02, 41



41년생 일고는 있으나 볼은 멀지 않다. 53년생 새로운 인연은 있으나 큰 기회는 거두어야. 65년생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가 보인다. 77년생 새로운 직업과 인연이 생기니 조심은 미라. 행운의 숫자 : 18, 32



42년생 기력이 쇠하니 심장을 살펴보라. 54년생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도 있으니 주변을 살펴보라. 66년생 순류에 향해하는 격이다. 78년생 새로운 일에 생길 수 있으나 신중하게 결정하라. 행운의 숫자 : 15, 33



43년생 불연이면 극한 상황도 예상 못하니 부부간의 언쟁을 삼가라. 55년생 금전 사기 대소비가 있을 수도 있고 직업 변경도 우려된다. 67년생 학문과 발전이 있다. 79년생 성공의 기회를 마련된다. 행운의 숫자 : 11, 34



44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56년생 백전백패가 될 수 있으나 가까운 주변인에게 신용을 얻으라. 68년생 어부지리는 있으나 조그맣다. 80년생 절대 손윗사람과 신사나 동업은 신중하게 결정하라. 행운의 숫자 : 12, 30



45년생 하는 일마다 불편한 인연이 따를 수가 있다. 57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결과는 미미하다. 69년생 생활의 무료함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변화를 가져라. 81년생 암중모색을 하니 쉽지는 않다. 행운의 숫자 : 24, 27



46년생 불연이면 따돌림을 당하니 이해하며 지내라. 58년생 부부의 애정이 소홀로 살해된다. 70년생 의심스런 인연을 만나니 생각하며 행하라. 82년생 또 다른 이성을 만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0, 39



47년생 남편과의 불만과 불평이 나타나니 본인의 잘못이다. 59년생 웃사람으로 인해 불편이 있으리라. 71년생 많은 고역이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83년생 재물에 갈등이 생기니 중정의 마음을 가져라. 행운의 숫자 : 22, 16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랜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906>

Please take your time
천천히 보십시오

A: May I help you?
B: Yes, I'm looking for a tour guidebook about Canada.
A: They're on the other side of the magazine section.
B: Thanks.

A: Please take your time.

A: 무얼 도와드릴까요?
B: 네, 전 캐나다에 관한 여행 가이드 책을 찾고 있습니다.

A: 잡지부분은 다른 편(반대편)에 있습니다.
B: 감사합니다.
A: 천천히 보십시오.

look for ~ : ~을 찾다
(참고) look for ~ : ‘~을 찾다’의 외에도 ‘기대하다, 기다리다’의 뜻이 있다
I'll look 2 o'clock : 난 2시 까지 기다리겠다
on the other side of ~ : ~의 반대 편에
tour guidebook : 여행 지침서
take your time : 천천히 하다

오하요우 니혼고 <906>

難(むずか)しいですね
어렵군요

A: 渡辺(わたなべ)さんは, コンピュータ使えますか。
B:ええ、少しだけ、でもまだ始(はじ)めたばかりなんです。
A:私も今、勉強中(べんきょううちゅう)なんですが、難(むずか)
しいですね。
B:お互(たが)い、素人(しろうと)同士(どうし)頑張(がんば)りま
しょう。

A: 와타나베씨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B: 예에, 조금, 하지만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A: 나는 지금 공부중입니다만, 어렵군요.
B: 같은 초보자끼리 분발합시다.

コンピュータ: 컴퓨터
始(はじ)めたばかり: 막 시작하다
お互い(たがい): 서로
素人(しろうと): 어떤일에 처음 시작한다거나 서툰 사람을 말함

니하오 종구워 <97>

我喜欢大家庭
저는 대가족이 좋아요

A: 想(おも)ひます?
Xǐng wāipó le?
시昂 와이포 어 러?
B: 对, 我外婆在北京。
Dui, Wǒ wāipó zài Běijīng.
우에이, 하이 와이포 어 짜이 베이징.
lingwái, háiyóu wāigōng, jiūjiú dēng hēn duō qīn rén.
링와이, 하이 우이 와이공, 짜우찌우 덩 흐언 두워 친언.

A: 我喜欢大家庭。
Wǒ xǐhuān dàjiātíng.
위 시후안 데자팅.
B: 大家庭热闹。
Dàjiātíng róngzhào.
데자팅 르아노.

外婆 [wāipó]
外公 [wāigōng]
舅舅 [jiùjiu]
热闹 [rēngao]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아버지
액자치질하다

한자 이야기 <523>

自勝者強 (자승자강)
스스로 자, 이길 승, 사람 자, 강할 강

자승자강(自勝者強)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 는 뜻이다. 날을 이기는 것은 힘으로 이길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感情)이나 욕심(慾心)을 이기는 것은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제어(制御)하는 강한 의지(意志)가 필요한 것이다.

이 맙은 노자(老子)의 말에 나온다.
“님의 능력을 알아보는 것은 지혜로운(智) 일이고,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총명하다(明). 날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지만(有力),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굳세다(強).”

여기서 ‘자신을 이긴다’ 함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절제(節制)하여 극복함을 말한다. 즉 공자가 인(仁)의 내용으로 설명한 ‘극기복례(克己復禮)’와도 연결되는 말이다. 자신의 사욕(私慾)을 억누르고 대신에 공동체의 질서(秩序)를 회복하고 계승할 때 ‘인(仁)’이 실현되듯, 유연(柔軟)한 자세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할 때 최상의 강자(强者)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대(明代)의 왕양명(王陽明)도 “산 속의 도적은 깨뜨리기는 어렵다(破山中賦易·破心中賦難)”고 주장하였다.

〈한예원(韓睿嬪)〉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